

## 光圳日뢖

SINCE 195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3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2일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시간당 54mm 쏟아졌다…광주·전남 집중호우 비상

광주 등 역대 최고 시간당 강수량 시·도, 여름 장마철 폭우 대비 강화 시간당 100mm 감당 장기 대책 시급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250mm 비

광주·전남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뛰어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년 전인 2020년에도 기록적인 폭우피해를 입었 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여름 장마기간에도 게릴라 성 집중 폭우 등이 수시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자연재난(풍수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민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간당 50mm조차 감당하기 힘든 기존 폭우 대책만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4.1mm, 이 날은 44.9mm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관측 이래 광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중 호우로 기록됐던 2018년 6월 29일 시간당 44.3mm보다 많은 양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치(극값) 1, 2위 기록도 새롭게 경신했다.

지난 27일 전남 광양에서도 2020년 6월 20일 31.5mm보다 강한 49.6mm의 거센 비가 내리면서 불과 3년 만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다. 여수도 시간당 40.8mm의 비가 내려 역대 세 번째로 강한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현재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함평 71.5mm (27일), 나주 60.5mm(26일), 고흥 55.5mm(28일),

구례(성삼재) 55mm(27일), 보성 54.5mm(28일) 등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여름 집중 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축 등 상황별·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사전대비 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폭우 때마다 범람하는 영산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최대 20년 빈도로 설계된 하수도 용량을 확장하는 게 시급하지만,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예산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48시간 기준 447.6mm), 지방하천은 최대 100년 빈도(400.9mm), 하수관로 는 최대 20년 빈도(299.3mm)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8월 7~8일 광주 516.1mm)처럼 500년 빈도(500년 만에 한번 내릴 가능성) 폭우가쏟아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들어 밤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패턴이 반복되면서, 기습적인 호우 피해 등이 수시로 발생할 수있다는 게 재난·재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 같은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하수관 거 용량 확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하천준설 및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 재해재난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단시간 집중호우로 도시 전체 가 침수피해를 입는 사례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 펌프장 증·신설 등 기존 배수시스템 개선과 함께 저류 기능 확보 등 도심 물 순환 체계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전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에 100~20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최대 250㎜까지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밤 최대 283㎜의 폭우가 쏟아진 28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 공사현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예·본과 통합 의대 6년제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33개 대거 개정 대학 자율 촉진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또한, 대학이 학괴와 학부 원칙을 폐지하고 융합학 과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지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 설도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 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 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 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

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 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 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역하게 교육과정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지금은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 어제(28일) 기록적 폭우로 인해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일부 지역에 신문 배달 차질을 빚은 점 양해 바랍니다.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 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 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 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 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기로 했다. 줄어든 액수는 300억원이 넘는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한전 계열사의 지원 몫까지 더하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기

2021년 이후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한국

전력이 올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30% 줄

계열사 포함 500억 가까이 줄어

존 계획보다 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나 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한전은 올해 에너지공대에 1016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는 데, 이를 30% 줄인 것이다.

한전, 에너지공대 출연금 300억원 삭감

한전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출연 대상인 에너지공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을 비롯한 10개 계열사도 향후 잇따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한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획보다 30% 줄여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존 출연 협약에 따라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올해 총 1588억원을 에너지공대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30% 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총출연금은 이보다 482억원 적은 1106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_IOPE LAB** 

## 수 퍼레티놀 단2주만에주름잡다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